

예술에서 사회·역사적 해석의 문제

—歸屬과 循環의 상호의존적 해석—

박 남 희*

- I. 서론: 예술의 사회·역사적 해석의 필요성
- II. 예술의 사회·역사적 해석의 제 입장과 '귀속'과 '순환'의 제기
- III. '귀속'과 '순환'의 토대론적 고찰과 해석의 제 과정
 1. 지식사회학과 '귀속'
 2. 해석학과 '순환'
- IV. '귀속'과 '순환'의 상호의존에 의한 해석
 1. 귀속의 제 과정과 순환
 2. 순환에 의한 이해와 귀속
- V. 결론: '귀속'과 '순환'의 사회·역사적 해석의 의의

요 약

예술의 이해에 가장 본질적인 태도를 제시했던 이들 가운데 예술학의 제창자인 데스와(Max Dessoir)는 일찍이 “예술이라는 위대한 사실이 함의하는 것들을 모든 방향에서 정당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예술이 “인간의 인식활동과 의지활동” 모두에서 기여하기를 희망하였다.¹⁾ 그의 이와 같은 진술에 의거해 보자면, 예술을 사회·역사적으로 해석하되 그것이 인식론적으로 그리고 존재론적으로 타당성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위하여 두 관점이 공존하면서 사회·역사적 해석의 방법을 모색하는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부터 이해의 문제를 주된 연구 범위로 하는 해석학에 대한 고

* 홍익대학교 대학원 강사

1) Max Dessoir, *Ästhetik und Allgemeine Kunstwissenschaft*, trans. Stephen A. Emery, *Aesthetics and Theory of Art*, Detroit: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1970, pp. 18-22 참조

찰은 당연한 절차가 되는데, 이는 해석학이 고대 신탁에 대한 해명으로부터 성서 해석 및 현대의 복잡하고 다의적인 텍스트로서의 예술에 이르기까지 그 본질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존재의 이해를 시도하는 것을 본연의 과제로 삼는 까닭이다. 해석은 그것의 규준을 발견하려는 방법적인 기술학(記述學²⁾을 발전시켜 왔으나, 현대적인 의미에서 해석학은 그러한 방법적 발전보다는 인간 존재의 이해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에 대해 리코르(Paul Ricoeur)는 해석학이 ‘인식론’에서 ‘존재론’으로의 이행했다고 주장하였다.³⁾ 그러나 해석 대상과 저자의 의도에 보다 충실해온 인식론적 관점과 해석 대상과 해석 주체와의 지평 융합에 의한 존재론적 관점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두 관점은 각각 독립적인 성격만이 부각되어 배타적인 관계로 간주되어 왔다. 이로부터 이 글은 두 관점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조명함으로써 이것에 의해 해석이 보다 충실해질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의도로부터 두 관점 모두를 상호 의존적인 해석의 절차로 수용하려는 방법적인 개념으로, ‘귀속’과 ‘순환’을 제기하였다. 이 두 개념은 해석의 과정에서 그 대상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인간 이해의 문제를 밝히는데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사회·역사적 해석에 도달하게 하는 구체적 전략이 되기 때문이다.

I. 서론: 예술의 사회·역사적 해석의 필요성

예술의 사회·역사적 해석과 귀속과 순환의 상호의존에 의한 방법을 이론적으로 모색하려는 목적 아래 다음과 같은 가설적 명제로부터 연구를 시작시키고자 한다. 즉, ‘해석에서 해석으로서의 가능성은 순환을 통해서 해석의 본질을 보유하지만 순

2) 기술학으로서 해석학의 역사는 이미 고대 그리스 호머(Homer)의 작품 해석을 둘러싼 논의에서부터 르네상스 이후 종교 개혁기의 성서 해석을 둘러싼 논쟁들을 포함하는 긴 역사가 있어 왔고, 그러한 역사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중요한 인문학의 영역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J. C. Maraldo, *Der Hermeneutische Zirkel*, München, Freiburg: Verlag Karl Alber, 1984, s. 24 참조.

3) 리코르는 하이데거와 가다머가 해석학을 인식론으로 간주하는 해석학적 전체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보았다. 이들의 공헌은 단순하게 딜타이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으며, 인식론적 과업 자체로 주변을 파고 들어가서 그것의 고유한 존재론적 조건을 밝혀 내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 그래서 해석학의 새로운 물음, 즉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로부터 “오직 이해 안에서만 존재하는 그 존재의 존재 양태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Paul Ricoeur, *Hermeneutics and the Human Science*, ed. trans. and intro. John Thomps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p. 53 참조 이후 HHS로 약함.

환은 차례로 귀속을 필요조건으로 하여 충족되어야만 순환의 적절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따라서 해석의 구체적 절차를 위한 모든 과정은 궁극적으로 두 중심 개념인 귀속과 순환이 상호 필연적으로 궤를 맞물려가며 작용함으로써 완성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해석으로서의 가능성이 순환과 귀속이라는 필요충분조건에 의해 보유된다는 주장의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논의의 중심 문제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해석 대상에 대한 인간 이해는 모든 해석의 궁극적 목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해에 도달하는 방식은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이해를 위한 규칙이나 방법론을 지향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 자체를 위한 것으로 편향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편향적 문제를 살펴보면, 초기의 아스트(F. Ast), 볼프(F. Wolf), 쉴라이어르마허(F. Schleiermacher), 딜타이(W. Dilthey) 등은 객관적 해석의 기준을 찾으려는 인식론적 관점의 이해를 지향했고, 하이데거와 가다머는 존재론적 관점에서 이해 자체의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방법의 문제는 주목하지 않았다. 이처럼 상반되는 해석학의 두 방법론적 한계에 대한 회의로부터 이 글의 문제 제기가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해석학사에서 상반된 태도들이 진전되어 왔으나, 직접적인 해석의 과정에서 각각의 태도들은 독립적으로 이해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방법론적 문제에 관한 인식론적 관점은 귀속의 태도와 유사하며, 이해 자체에 대한 존재론적 관점은 순환의 태도와 근사한 것으로 간주된다. 양자 모두는 해석의 거의 전 과정에서 동시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귀속과 순환에 의해 구체화되는 해석의 과정이 존재해온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 기존의 해석학적 논의들이 간과해온 것으로부터 이들의 상호교호 작용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물론 이들의 상반된 해석의 태도로부터 종합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리콰르와 같은 이가 있긴 하나, 해석의 절차로서 이들의 궁극적인 접목에서는 대해 침묵하였다.

이와 같은 해석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부터 귀속과 순환이라는 주요한 접목의 단서를 발견하고 이 두 개념을 중심으로 한 예술의 사회·역사적 해석에 있어서 새로운 이해의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해석 대상에 대한 항목들의 규칙이나 방법이 밝혀지는 과정과, 규칙이나 방법의 이해가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요컨대 해석 대상인 텍스트의 구조를 밝히고, 그것이 현전하는 바를 탈은폐 시킴으로써 종합적 이해를 모색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귀속과 순환이라는 중심 개념들은 마치 피비우스의 띠와 같이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이 반복적으로 해석의 과정에 작용하게 되며 이러한 작용에 의해 궁극적으로 해석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II. 예술의 사회·역사적 해석의 재 입장과 ‘귀속’과 ‘순환’의 재기

예술에 대한 사회·역사적 해석의 입장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시각 예술의 시공간의 탄생과 사회와의 관계를 조명했던 프랑카스텔(Francastel)의 방법론이나, 시각예술에서 도상과 상징을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조건으로 규명하려했던 바르부르크(Aby Barburg)와 파노프스키(Erwin Panofsky) 등의 도상해석학, 그리고 맑스주의적 입장에서 예술의 사회적 생산을 주장했던 예술사회학자 자넷 윌프(Janet Wolff)의 방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회·역사적 해석의 시도들은 각각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없지 않았다. 즉 프랑카스텔의 시각예술의 양상과 시공간의 상호영향관계를 파악한 방식에서는 사회적 분석이나 역사적 토대에 의한 유기적 해명으로서 해석이라기보다는 시공간과 사회의 조건에 대한 인식론적 접근으로 검토되었다. 또한 파노프스키를 중심으로 전개된 도상해석학에서는 추상미술을 적용할 수 없는 제한된 예술에의 적용 및 내용에 치우치며 직관적이고 자의적인 분류나 해석이라는 비판과 한계를 면하기 어려웠다. 윌프 역시 예술사회학적 해석에서 결국 반영론적 입장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미적 특수성에 대한 옹호를 부각시킴으로서 예술의 사회적 생산으로부터 사회학적 미학으로의 환원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시도는 시각예술에 대한 사회·역사적 해석을 향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각적 표현과 사회의 구조적 상동성(structural homology)을 기반으로 한다는 공통점에 의의가 있었다. 따라서 그 중심이 되는 문제로서 상동성에 대해 먼저 살펴야만 한다. 골드만(Lucien Goldman)은 사회의 구조와 예술 작품의 구조에는 상동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는 이것을 《소설의 사회학》에서 소설 형식과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발견하였다. 골드만의 이러한 주장은 여타의 사회·역사적 해석에 수용되어 예술 작품과 사회의 상동성을 해명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과제가 되었다. 또한 시각예술의 구조와 사회 구조간의 상동성은 파노프스키와 같은 인물에 의해 주목되었다. 그는 <고딕건축과 스킨라

주의 (Gothic Architecture and Scholasticism)>(1951)에서 스킨라주의의 구조와 침탑과 스테인드글라스로 이루어진 건축물 구조 간에는 엄격한 대응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파노프스키는 이러한 대응관계를 보편적인 정신적 관습(common mental habit) 위에서 구축된 것으로 보았다. 곧 그는 실재가 특정한 조건하에서 보여지는 방식을 통해 대응함을 해명한 것이다. 이 모두는 작업 방식(modus operandi)의 수준에서 표출되는 정신적 관습을 드러낸다.

한편 이러한 상동성의 개념에 대한 접근은 부르디외(Pierre Bourdieu)에 의해 다시 한번 환기되었다. 부르디외는 파노프스키의 <고딕건축과 스킨라주의>를 프랑스어로 옮기면서 그 서문에서 ‘아비투스(Habitus)’에 관한 개념을 최초로 소개한다.⁴⁾ 그에 의하면 아비투스는 구조주의의 객관주의적 편향을 비판하면서 제기된 개념이다. 즉 구조는 행위 주체에게 선형적으로 주어진 어떤 것이 아니고, 게다가 행위자의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서의 구조도 아니며, 이미 행위자의 인식 기제 안에 내재된 집합 의식일 뿐이다. 부르디외는 이렇게 반 구조주의의 원칙을 주장하기 위해 ‘구조화된 구조’로서 아비투스 개념을 제안했다. 그는 예술 지각의 현상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은 지각에 필요한 코드가 내화되고 구체화된 도식의 체계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코드는 사회적인 차이에 기반한 분류 도식에 의해 구성된다고 하였다. 그는 사회적 세계를 구성하는 대립물에 상동적인 개념적 대립물을 통합시킨 것이다. 결국 예술 지각은 지각 주체의 아비투스와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것이며, 결코 모든 행위자에게 공통적이지 않을뿐더러 명확히 사회적 차이에 기반한 것이다. 따라서 예술 지각이 보편적이고 초월적이라는 주장은 사회적 차이를 은폐하고 지배 질서를 재생산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르디외는 아비투스와 같은 사회적 상동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조와 작품구조 사이의 또는 작품과 특정 계급의 세계관 사이의 상동성을 제기하는 ‘반영이론’을 비판한다. 즉 골드만의 ‘초개인적인 주체’ 이론과 특정 작품의 구조란 작품을 생산하는 사회적 집단이나 계급의 세계관을 표현하거나 반영하는 것⁵⁾이라는 사고를 거부한다. 그러한 접근은 작가를 어떤 매개로

4) 아비투스는 스킨라철학에서 빌어온 개념이며,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연관되는 의미 헤겔, 후설 또는 모스같은 철학자들이 사용해왔다. Bourdieu, Postface', in E.Panofsky, *Architecture gothique et Penée scolastique*, trans. P. Bourdieu, pp.133-167참조

5) Lucien Goldman, *The Hidden God*(New York, 1964), *Toward a Sociology of the Novel*, (London, 1986) 참조

환원하면서, 한 집단과 그 집단의 표현양식 사이에 완벽한 상호관계를 가정하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작품을 저지라기보다는 사회적 계급의 표현으로 지각하고, 작품을 사회집단의 집단적인 산물로 위치짓는 그 같은 접근은 역시 상징적 상품의 생산, 순환, 소비의 객관적 조건들이 무시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존의 상동성으로 대표되는 사회·역사적 해석에는 사회적 개인으로서의 작가의 입지가 강조된 채, 주체적 개인의 지평은 간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존재론적 지평에서 예술을 해석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한 해석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검토로부터 시각예술의 사회·역사적 해석에서 보다 충실한 방법은 이해의 범주에서 인식론적으로나 존재론적으로 조화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결과가 된다. 그에 따라 사회·역사적 해석의 방법론을 만하임(Karl Mannheim)을 중심으로 한 지식사회학적 방법과 가다머(Hans-George Gadamer)를 중심으로 한 해석학적 방법을 상호연계 하여 종합에 이르는 방식을 제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만하임의 지식사회학적 토대로부터 해석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사회적 배경과 지식의 문제를 '귀속'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고, 가다머의 해석학에서 존재와 존재의 역사 이해를 해석학적 '순환' 원리를 중심으로 할 것이다.

두 중심 개념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귀속 또는 귀속 의식의 일차적 의미는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하여 집단 구성원들이 일체감을 느끼는 정신작용을 말한다. 또한 그 일체감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심리적인 상태를 가리키기도 한다. 특정 집단에 대해 귀속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그 집단의 목표, 가치체계, 역할체계 등을 내재화하는 심리 과정을 거친 결과로 의식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이 글에서 귀속은 해석하고자 하는 대상의 사회적 근거와 의미 맥락을 밝혀내는 과정으로서 오랜 동안 방법과 규칙을 찾으려 했던 해석학의 인식론적 관점에서 그 전거가 발견된다. 한편 일반적으로 해석학적 '순환'이란 이미 해석된 것 안에서 대상을 이해하려는 데서 발생한다. 해석의 결과로서의 이해는 이미 이해된 것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미 알고 있어야 알 수 있다. 해석은 전이해(pre-understanding) 또는 전제된 이해 안에서 이해를 획득한다. 그러므로 부분은 전체로부터 이해되며 전체는 그 부분들의 내적인 조화로부터 이해된다고 할 수 있다.⁶⁾ 바로 이와 같은 두 개념을 논점으로 하여 상호의존적 해석의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6) R.Palmer, *Hermeneutics: Interpretation Theory in Schleiermacher, Dilthey, Heidegger, Gadamer*.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9, p. 87 참조

III. ‘귀속’과 ‘순환’의 토대론적 고찰과 해석의 제 과정

예술은 사회와 역사로부터 독립된 천재의 산물이 아니라⁷⁾ 역사적 전승과 사회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구조화된 실체인 까닭에, 이러한 사회·역사적 실체로서의 텍스트를 드러낼 수 있는 해석의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해석 대상으로서의 예술을 그 본래의 사회·역사적 발생점으로 되돌려서 사실을 파악하게 하고, 해석 주체의 역사의식과 해석 상황에 따라 의미가 발생된다는 맥락에서 볼 때, 해석학의 인식론과 존재론의 두 관점은 예술의 사회·역사적 지평을 드러내는 필연적인 토대로 작용하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인식론적 관점에서는 ‘귀속(歸屬, *Zurechnung, imputation*)’이 그리고 존재론적 관점에서는 ‘순환(循環, *Zirkel, hermeneutical circle*)’이 그러한 해석의 지평을 드러내는 데 주요한 해석의 절차로서 자리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따라서 예술의 사회·역사적 해석에 있어서 귀속과 순환이라는 이 두 논점은 해석을 보다 충실하게 이끄는 주요한 절차들로서 상호 의존적인 양태로 해석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이 글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의 주요한 절차로서 인식론적 관점과 존재론적 관점에서 제기된 대안적 개념인 귀속과 순환은 어떤 개념인지를 밝혀둘 필요가 있다. 사전적 의미의 귀속과 순환 각각은 다양한 의미의 층을 지니고 있지만 여기서는 ‘해석학적’이라는 단서를 전제한 개념으로 정의할 것이다. 또한 이들은 해석학적 개념으로서 각각 상호 대립적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방식으로 해석에 작용하게 된다.

1. 지식사회학과 ‘귀속’

먼저 귀속 또는 귀속 의식의 일차적 의미는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하여 집단 구성원들이 일체감을 느끼는 정신작용을 말한다. 또한 그 일체감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심리적인 상태를 가리키기도 한다. 이 경우 일체감의 대상이 되는 집

7) 이러한 연구자의 입장은 예술에 대한 탈신비화를 주창했던 자넷 윌프, 베라 졸버그와 같은 예술 사회학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한 입장은 Janet Wolff, *Hermeneutic Philosophy and the Social of Art*, London and Boston: R.K.P., 1975. ; *The Social Production of Art*, London: Macmillan, 1981. ; *Aesthetics and the Sociology of Art*, George Allen & Unwin, 1983와 Vera L. Zolberg, *Constructing a Sociology of the Ar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이 있다.

단은 주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서, 실제로 그 집단의 일원인가 또한 그 집단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정 집단에 대해 귀속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그 집단의 목표, 가치체계, 역할체계 등을 내재화하는 심리 과정을 거친 결과로 의식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사전적 의미로부터 연구자는 해석학적 대안 개념으로서 귀속을 정의하고자 한다. 귀속은 해석하고자 하는 대상의 사회적 근거와 의미 맥락을 밝혀내는 과정으로서 오랜 동안 방법과 규칙을 찾으려 했던 해석학의 인식론적 관점에서 그 전거가 발견된다. 예컨대 쉴라이어르마허가 문법적, 심리적 해석을 구분하고 원래의 저자의 의도를 밝혀갔던⁸⁾ 작업 역시 귀속에 준하며, 딜타이가 저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그의 체험과 표현의 관계를 밝히는 과정 역시 이에 해당한다. 특히 딜타이는 이러한 귀속의 과정을 사회·역사적 지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⁹⁾ 귀속에 대한 근원적 전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의 귀속에 대한 과정이 인식론적 관점¹⁰⁾에서 해석 대상의 사회·역사적 사실과 맥락을

8) 물론 쉴라이어르마허의 문법적, 심리적 해석의 구분이 딜타이나 만하임이 제시하는 귀속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귀속에서의 과정과 유사한 지점이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다. 쉴라이어르마허에 있어서 해석학의 목표는 텍스트 저자의 정신적 삶을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해의 기술로서의 해석학은 보편적인 분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수한 해석학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해석학을 추구하는 것이 그의 근본 목적임을 드러냈다. 그에 의하면 기술로서의 이해는 텍스트 저자의 원래의 정신적 과정을 다시 체험하는 것이므로 창작과정의 역전이다. 이렇게 다시 체험하는 것은 이미 고정되고 완결된 표현에서 시작하여 원래 그 표현이 생겨났던 정신적 삶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해석의 과정에서 귀속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 저자는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고, 청자는 문장의 구조와 사상을 파악한다. 따라서 해석은 두 개의 상호작용하는 계기로 이루어진다. 즉 문법적 계기와 심리적 계기가 그것인데, 이러한 재구성이 일어나는 데에는 해석학적 순환이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R. Palmer, *Hermeneutics: Interpretation Theory in Schleiermacher, Dilthey, Heidegger, Gadamer*,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9, pp. 85-87 참조.

9) “인간에게 있어서 내면적인 시간과 과정들이 동물의 그것과 구별될 수 있는 이유는 첫째로, 사람이 사람을 이해할 때 진정한 전위(轉位)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사고의 친화성과 보편성이 …… ‘사회적-역사적 세계(social-historical world)’를 상정할 수 있고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Wilhelm Dilthey, *Gesammelte Schriften* V, Stuttgart:B.G.Teubner, 1957/1982, S. 150. 이하 GS로 약하고 권수만 표기함.

10) 딜타이는 해석학을 정신과학에 있어서의 인식론으로 파악하고, 자연과학에 대응하는 정신과학의 인식론적 정초를 해석학의 과제로 삼았다. 그는 자연과학과 정신과학 사이에 근본적으로 놓여있는 구별을 간파했다. 정신과학은 인간의 내면의 과정, 즉 인간의 ‘내적 체험’과 관련되는 한에서만 의미를 갖게 되는 사실들과 현상들을 대상으로 한다. 정신과학은 감정입입의 신비스러운 과정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내적 체험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 R. Palmer, 앞의 책, pp. 103-104 참조.

밝히는 지표를 설정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딜타이는 이러한 예술의 세계와 그것이 속한 시대적 사유로서의 세계관을 밝힘으로써 귀속에 대한 근간을 마련하지 만, 귀속에 대한 직접적인 개념을 제시하거나 해석을 위한 구체적 절차로서 논의를 전개하지는 않았다. 그의 이와 같은 생각은 오히려 지식사회학자인 칼 만하임에게서 구체화되었다.¹¹⁾

만하임은 딜타이의 정신과학으로서, 인식론적 관점에서 해석학을 정초시켰던 체험, 표현, 이해 사이의 체계적 연관과 세계관 개념을 수용하고, 여기에 칼 마르크스(Karl Marx)¹²⁾의 존재결정론과 계급이론에 영향을 받아 해석의 주요한 절차로서 '귀속'을 제시하였다. 그의 '귀속' 개념에는 이전의 마르크스와 이후의 그윈발트(Ernst Grünwald)¹³⁾에 이르는 지식사회학적 입장이 전제된 것이다.¹⁴⁾ '귀속'이란 지식사회 학이 어떤 이념체계나 이데올로기를 구체적인 사회적 실체에 대응시킴으로써 사회구조와 사고구조의 상관관계를 추적하는데 있어서 그 발생기원을 찾아가는 것의 문제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 이데올로기나 이념체계의 발생 기원을 구체적인 사회 계급이나 계층 또는 집단에서 찾아내는 작업을 '귀속'이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속'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이념체계의 내용을 사회적 실체의 물질적 위치로 환원시키

11) 만하임의 귀속 개념은 사실 관련적 그리고 의미 관련적으로 나뉘며, 객관적, 표현적, 기록적이라는 세 개의 의미층을 나누어 세계관을 해명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 과정을 제시한다. 또한 귀속의 궁극적 목적인 이데올로기는 부분과 전체, 보편과 특수, 가치자유적인 것과 가치평가적인 것으로 나뉘어 절차화 된다. 귀속을 중심으로 한 만하임의 주요 해석의 절차와 개념들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본 논문의 2장 2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12) 구체적으로 마르크스는 계급의식과 계급이론에 내재된 귀속이론을 제기했는데, 그에 따르면 사고는 경제적 이해 관심의 직접적인 인과적 산물이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의 이익에 공헌하는 사고는 프롤레타리아적이고, 부르주아의 이익에 공헌하는 사고는 부르주아적이다. 그러나 이렇게 경제적 이해 관심만을 기준으로 하는 마르크스적 귀속 이론에는 문제가 있다. 만약 어떤 계급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그들의 경제적 이익 간의 상반됨을 그들 계급의 가장 뚜렷한 특성으로 하는 경우, 단지 경제적 이해 관심의 독단론으로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다른 계급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개인이 소속되는 계급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것과 적어도 어떤 개인이 자신의 계급을 결정한다고 해도 그의 사고방식은 그와는 다른 계급에 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이다. 예컨대 마르크스는 그의 교양과 학식으로 본다면 부르주아 인텔리겐차에 속하며, 엥겔스는 사회·경제적으로 자본가 계급에 속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가 없다. 이들과 달리 프롤레타리아적 사고를 가진 비프롤레타리아가 있다고 한다면 지식사회학에서는 귀속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가 관건이 된다.

13) 그윈발트는 예술과 의식의 문제에 관한 지식사회학에 관심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저서를 남겼다. *Das Problem der Soziologie des Wissens; Versuch einer kritischen Darstellung der Wissenssoziologische Theorien*, Vienna: Wilhelm Braunnüller, 1934.

14) 송호근, 《지식사회학》, 나남, 1990, pp. 223-240 참조

게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¹⁵⁾

이러한 의미로부터 귀속의 개념은 만하임에 이르러 방법적 성격을 띠게 되는데, 그는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에서 작품을 “시간적으로 위치지우고” “공간적으로 자리매김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미술사에 주목하면서 방법을 강구해 나간다.¹⁶⁾ 미술사의 방법과 같이 지식사회학이 사유의 역사에서 점진적으로 발생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다양한 관점들을 규정하는 것을 논하는 가운데 만하임의 귀속의 방법(method of imputation)이 제기된다.

귀속의 방법은 개개 사유의 산물들이 갖는 관점들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러한 관점들을 하나로 통할 수 있는 사유 흐름과의 연관성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만하임은 미술사의 영역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사유 흐름들을 규정하는 사회적 동인들을 추적하고 규명하는 일을 또 다른 과제로 부가한다. 즉 만하임은 이데올로기를 이념형(ideal type)으로 상정하여 귀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사고체계의 배경을 이루는 양상구조(Aspektstruktur)를 확정하고, 확정된 양상구조를 사상의 흐름과 연관시킨 다음, 이러한 사상적 조류를 다양한 시각적 위치의 발생 근원적 사회적 실체에 귀속시킨다.¹⁷⁾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만하임은 귀속을 의미와 사실의 차원에서 다루는데, 이 사실적 차원의 귀속이 곧 사회학적 귀속이 된다. 그에게 있어 귀속의 문제는 객관성과 인식에 관한 것이 되고, 객관성에의 추구는 곧 가치평가적 또는 판단적 입장과 연관된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그의 ‘귀속’ 개념은 지식인¹⁸⁾

15) 사실 이러한 입장은 마르크스나 만하임이 지닌 환원론적 시각이며 런시만(W. G. Runciman)같은 이론가들의 비난을 면치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런시만은 마르크스나 만하임이 지닌 환원론적 시각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계급이 어떤 이념이나 의견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념이나 사고를 가졌다면 그것은 계급을 구성하는 개개인이며, 지식인이나 프롤레타리아에게서 우리는 루카치(G. Lucács)와 만하임이 이념형적 의견일치를 부여했던 하나의 주체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양상을 너무나 쉽사리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W. G. Runciman, *Social Science and Political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p. 122.

16) Karl Mannheim, *Ideology and Utopia: An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Knowledge*, ed. Louis Wirth and Edward Shils, London: R. K. P., 1936, p. 275 참조 이후 IAU로 약함.

17) IAU, p. 276 참조

18) 만하임의 귀속의 문제는 계급의식이나 사고체계의 객관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며, 객관성에의 추구는 곧 ‘가치평가적’ 또는 ‘판단적’ 입장의 확보와 관련된다. 그의 지식인론은 대단히 유용한 관점을 함축하는데, 지식사회학을 해석적 방법으로 볼 때, 그의 지식인 개념에 대한 전통적인 비판들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그는 처음에 지식사회학을 가치평가적 입장으로 끌고감으로써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하나의 포괄적 체계로 통합시켜야 하는 논리적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각각의 편파적 입장을 상관주의적 관점에서 통합하는 능력을 지식인 계층에서 찾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만하임의 소박한 태도로 하여 많은 이견이 나오게 된 것이다.

과 계급의식 그리고 존재 구속성이라는 개념들과의 상관성을 지니며 무엇보다도 구속의 기준을 정립하려는 이론적 시도로서 인식론적 돌파구로서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구속의 절차들은 곧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다시 전체로 확장되어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 그 의미를 밝히게 된다.

2. 해석학과 ‘순환’

다음으로 ‘순환(Zirkel)’은 철학적 문제로서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된 개념이다. 플라톤의 대화술이나, 헤라클라이토스(Herakleitos)는 ‘원둘레에 있어서 시작과 끝은 공통적이다(Beim Kreisumfang ist Anfang und Ende gemeinsam)’ 라는 표현으로 순환의 전제에 대한 철학적 의미를 부여한다.¹⁹⁾ 이러한 문제는 오직 대화만이 철학적 아포리아(Aporie)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믿었던 소크라테스(Socrates)에게도 나타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순환은 논리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인식론적 문제이며 여기서 대화의 기술로서의 변증법과 해석학의 밀접한 구조 연관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독일 고전관념론으로 넘어오면, 특히 헤겔은 ‘학’의 본질적인 것은 학문 전체를 앞의 최초의 것과 최종적인 것의 자기 내적 순환으로 파악했던 것이다. 이러한 고전적인 탐구는 ‘앎의 순환(Zirkel des Wissen)’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해석학에서 순환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는 것은 학적 체계로서가 아니라 루터(M. Luther)의 성서 해석에서 텍스트를 이해하는 문제에서이다.²⁰⁾ 이렇게 시작된 순환 개념은 아스

예컨대 호로비츠는 만하임의 지식인을 “이념으로 머리를 정결히 하지만 결코 비누로 씻을 줄 모르는 사람”(I. L. Horowitz, “Science, Criticism, and the Sociology of Knowledge”, in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21, p. 183.)이라 하였다. 그러나 만하임의 의도는 결코 임의적이거나 근거없는 확신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다. 사고는 개인적 경험을 뒷받침하는 의미맥락의 차원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통된 사회적 경험에 위치한다고 믿었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의 지식의 조건이었다. “항상 실험적인 입장에서 사회적 민감성을 스스로 키워 나갈 뿐 아니라, 또한 동태성과 전체성을 주안점으로 삼는 태도를 확보하는 것은 결코 중간층에 위치한 계급이 아니라 계급성도 희박하며, 또한 사회적 공간 내에서 별로 확고한 계층구조도 형성하지 않는 그러한 계층이라고 보아야만 하겠다. …그와 같이 자기의 위치를 일률적으로 확정시키지 않는, 비교적 계급성이 희박한 계층은 사회적 부동층으로서의 지식인 집단이다.”IAU, pp. 138-139.

19) J.C. Maraldo, 앞의 책, S. 13에서 재인용.

20) 성서 해석에는 그 자체의 고유한 이해 원칙이 있는데, 텍스트에 대한 이해의 시작은 전체의 의도에 있으며, 거기에서 텍스트의 위치는 명백한 것이 된다. 이후 해석학의 고전적인 ‘이해의 순환’은 아스트와 실라이에르마허에 의해 제기되며, 그러한 순환 이해는 지속적인 탐구에서 수행되어 나가게 되었다. 같은 책, S. 12f 참조

트²¹⁾나 쉴라이어르마허로부터 달타이에 이르는 인식론적 관점의 초기 해석학자들 뿐 아니라 하이데거와 가다머의 철학적 접근, 그리고 이들의 조화를 주장하는 리콰르의 논의에서도 해석의 중심 개념이 된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이해는 해석학적으로 순환한다”²²⁾는 아펠(Karl-Otto Apel)의 언급처럼 이것은 인간 존재와 결부된 가장 근본적인 이해 문제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해석학적 ‘순환’이란 이미 해석된 것 안에서 대상을 이해하려는 데서 발생한다. 해석의 결과로서의 이해는 이미 이해된 것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미 알고 있어야 알 수 있다. 해석은 전이해(pre-understanding) 또는 전제된 이해 안에서 이해를 획득한다. 그러므로 부분은 전체로부터 이해되며 전체는 그 부분들의 내적인 조화로부터 이해된다고 할 수 있다.²³⁾ 이해란 기본적으로 지시적인 기능으로서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것과 비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해하는 것 자체는 부분들로 이루어진 체계적인 통일성 혹은 순환을 형성한다. 전체로서의 순환은 개별적인 부분들을 규정하고, 또 부분들은 한데 모여 순환을 형성한다. 개별적인 개념은 그것이 입각해 있는 맥락이나 지평으로부터 의미가 도출된다. 이때 지평은 자신이 의미를 부여해 주는 바로 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와 부분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이들 각각은 서로에 대해 다른 의미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해는 순환적이다. 의미는 이러한 ‘순환’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이를 ‘해석학적 순환’이라 부른다.²⁴⁾

르네상스로부터 쉴라이어르마허를 거쳐 달타이로 이어지는 일관된 해석학적 전통의 맥락에서 ‘순환’의 문제는 자연과학적이고 실증적 방법에 대항하는 방법론적 문제로서, 즉 인식 순환(Erkenntnis-zirkel)으로만 다루어져 왔다.²⁵⁾ 이러한 인식론적 관점에서의 순환이 아니라 존재론적 관점에서 순환을 드러냈던 이들은 하이데거와 가

21) 아스트는 정신의 통일성을 해석학적 순환의 기초로 제공하는데, 여기서 정신이란 모든 발전과 생성의 원천인 까닭에 전체의 정신은 개별적인 부분들에 각인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근원적으로 ‘정신’과 결부되어 있지 않다면, 과연 우리는 현재의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관점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사실 하나의 정신은 하나의 영원한 빛이 수천 가지의 색깔로 나누어지듯이 가지각색으로 표현된다.” Friedrich Ast, *Grundlinien der Grammatik, Hermeneutik und Kritik*, Landshut: Tomann, 1808, p. 166 참조 이하 GGHK로 약함.

22) Karl-Otto Apel, *Meaning and Understanding*, ed. Herman Parret and Jacques Bouveresse, Berlin &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1, p. 2.

23) R. Palmer, 앞의 책, p. 87 참조

24) 같은 책, 같은 곳 참조

25) 강돈구, “해석학적 순환의 인식론적 구조와 존재론적 구조”, 《해석학과 사회철학의 제문제》, 일월서각, 1990, p. 53 참조

다머가 대표적이다. 특히 가다머는 하이데거의 철학적 입장을 수용하여 해석학적 순환의 개념을 자신의 철학적 지평에서 선입견, 영향사 의식, 지평융합을 통해 구체화하였다. 그는 하이데거의 세 가지 핵심 요소들인 시간, 이해의 전구조(*fore-structure*), 해석학적 순환의 개념을 수용하여 자신의 철학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해석학적 순환을 가장 주목하였다. 하이데거는 해석학적 순환을 ‘이해에 있어서의 존재론적, 구조적 요소’라고 얘기하였으며, 이것이 가다머에게 이어져 형식적 순환이 아니라 전통의 움직임이 갖는 상호작용으로서의 이해로 보게 하였다.²⁶⁾ 즉 하이데거를 따라서 가다머는 해석학적 순환을 해결되어야만 하는 방법론적 문제가 아닌 이해의 존재론에 필요한 긍정적인 요소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의 움직임이 갖는 상호작용’과 그에 따른 결과를 기술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전승 과정에서 사회·역사적 지평은 맥락화되고 순환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존재의 의미 뿐 아니라 사실 의미가 밝혀지는 귀속 역시 개입하게 된다.

이러한 해석의 주요 절차로서 주목된 대안적 개념들인 귀속과 순환으로부터 예술의 사회·역사적 해석이 구체화될 것이다.

IV. ‘귀속’과 ‘순환’에 의한 구체적 해석 과정

해석 대상으로서 텍스트가 귀속과 순환에 의한 상호의존적 작용에 의해 이해가 가능하다는 기본 입장으로부터 그 해석의 정위는 사회·역사적임을 규정했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해석 텍스트를 밝혀나가는 데 있어서 의미의 지평을 그 대상의 궁극적인 세계관과 해석 주체의 시대정신의 융합에 의해 거듭 새로운 해석의 행위와 의미를 발생시키고자 함이다. 이러한 의도는 앞서 논의에서 귀속과 순환이 갖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해명됨으로써 입증된 바, 그들의 구체적인 해석의 과정들을 요약하여 이를 상호의존의 관계로 주장하고자 한다.

1. 귀속의 재 과정과 순환

예술의 사회·역사적 해석에서 상동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는 특정

26) R. Palmer, 앞의 책, pp. 100~102 참조

집단의 특수한 신념체계에 관한 것이다. 수잔 헵크만(Susan Heckman)은 만하임의 연구 방법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와 가다머의 선이해에 대한 철학적 탐구와 특정한 신념체계 그리고 그 체계가 특정한 사회 집단과 맺는 관련성에 대한 탐구 사이에 연속성을 상정하고 있다는데 주목하고 있다.²⁷⁾ 그런 의미에서 가다머와 마찬가지로 만하임은 자연과학적 진리 개념에 대한 반대적 견해를 표명하고 해석자와 해석 대상 양자간에는 선입견이 필연적으로 개입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의 지식사회학의 과제는 해석학적 해석(hermeneutic interpretation)이라 하는 것이다.²⁸⁾

만하임은 귀속에 의해 모든 시대의 작가 혹은 저자들이 검토 가능하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 귀속은 저자들이 표현한 내용 속에서 발견될 여러 관점의 혼합과 교차에 의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귀속의 방법은 사유 양식의 실제 역사를 드러내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정신적 발전을 재구성하는 일에 최대한의 신뢰성을 부여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처음에 정신사 과정의 요약 인상(summary impression)에 불과했던 것을 그 요소들로 분석해서 들어가며, 이러한 인상을 명시적인 범주들로 환원시킴으로써 실재(reality)의 재구성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유의 역사에서 작동중인 자율적이고, 비분절화된 동인들(forces)을 선별하는데 성공한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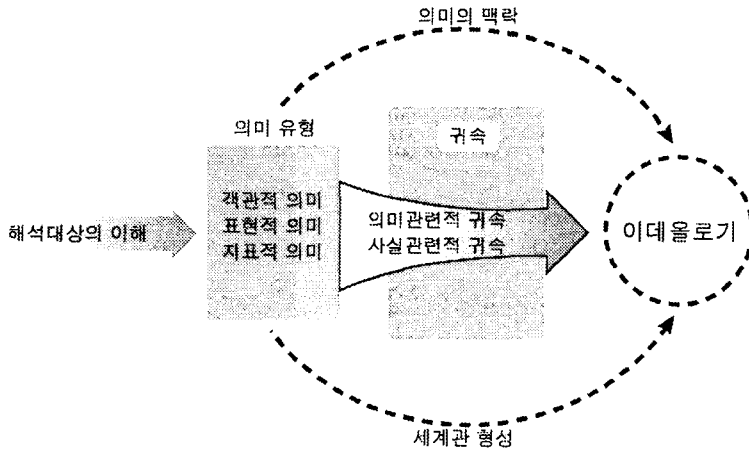
이러한 두 수준의 귀속을 통해 사유 양식의 구조와 경향이 파악되면 다음으로 그것들을 사회학적으로 귀속시키는 문제가 제기된다. 만하임에 의하면, 보수적 사유의 형식들과 변형들을 오로지 보수적 세계관과 관련지어서만 설명하려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오히려 사유의 유형(mode of thought)으로 그 자신을 표현하는 집단이나 계층들(strata)의 구성으로부터 보수적 사유의 형식들과 변형들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만하임은 이와 같이 집단과 계층으로부터 사유 형식과 변형을 이끌어낸 후에 좀 더 포괄적인 역사, 사회적 전체 안에서 구조적 상황과 변화를 설명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만하임이 제기하는 귀속의 방법은 초기의 직관적 인상에서 엄밀한 관찰에 이르는 모든 다양한 지식 유형을 지속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사회적 현존(social existence)과 사유 사이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에 도달하고자 하는 시

27) Susan J. Heckman, *Hermeneutics and the Sociology of Knowledge*, Polity press, 1986, p.237 참조

28) 같은 책, pp.79-80 참조

29) 같은 책, p.277 참조

도인 것이다. 이로써 만하임은 인상적인 추측(conjecture)으로부터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연구의 단계로 이행할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회·역사적 집단의 전체적 삶은 그 자체를 상호의존적 구조체(interdependent configuration)로 드러낸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만하임에 의하면 사유는 오로지 이러한 상호의존적 구조체의 표현이고, 삶의 제 양상들의 상호작용은 그 구조체의 근본 요소가 된다. 그러한 까닭에 이 구조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연관관계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하며 이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온당한 사회·역사적 해석의 토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귀속은 세계관과 의미층 그리고 이데올로기로서 보다 명백하게 해석으로 구체화된다. 따라서 만하임의 해석학적 해석으로서의 지식사회학이 제안했던 개념들에 의존하여 이를 구체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즉 아래 <그림 1>과 같이 만하임의 해석학적 지식사회학으로부터 해석의 인지들을 재구성함으로써 그것의 윤곽을 그렸다.



<그림 1> 만하임의 지식사회학에 기초한 인식론적 관점의 귀속의 구조

이러한 인식도는 만하임이 제공하는 해석의 절차를 요약적으로 보여주는데, 좀 더 명확히 말하자면 해석 대상으로부터 의미유형 그에 따른 세계관을 통해 인식론적 관점을 구축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런 상이한 의미가 드러나는 방식을 특정화하는 것이 문화적 산물의 이해에 있어 일차적인 전제가 된다고 언급하면서, 전체로서의 모든 문화적 산물은 세 가지의 의미층을 보여준다고 역설하였다.³⁰⁾

30) ESK, pp. 43~44 참조

만하임이 제기하는 세 가지 의미유형 혹은 의미층은 객관적 의미(objective meaning), 표현적 의미(expressive meaning), 기록적 의미(documentary or evidential meaning)로 구분된다.³¹⁾

의미층	근거	요구 사항
객관적 의미	대상자체의 구조적 법칙에 근거	- 지각분야의 구조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것이 요구 - 데이터가 정의되는 준거들의 참조를 필요로 함 - 준거들의 선택은 관찰자의 관심, 선입견, 이론적 관점에 좌우
표현적 의미	작가 또는 창조자의 의도에 전달되는 어떤 것	- 실재에 일치하게 파악할 과제를 요구 - 의미가 부여되는 속성들 이상의 어떤 것을 참조할 것이 요구 - 주체의 의식적 활동 속에서 작품이 출현하는 경험 맥락 참조
기록적 의미	작가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의 시대, 문화, 시대정신에 대한 이해	- 표현적 의미보다 이차적, 포괄적인 차원의 매개적 의미 - 예술적 창조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주체의 본질적 성격, 특성, 에토스를 가리킴 - 해석자에게만 있어서 의도적 대상이 될 수 있고, 작가의 입장에서는 무의도적, 무의식적 부산물

<표 1>

이러한 만하임이 제기하는 세 가지 의미층은 해석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식론적 토대와 같은 작용을 한다. 해석 대상에 대한 객관적 의미와 표현적 의미 그리고 기록적 의미를 구분함으로써 궁극에는 대상 자체와 저자 그리고 해석자의 삼항 관계가 전제된 해석의 지평을 형성한 것이다. 이러한 그의 체계적인 방법을 이미 오래전에 미술사학자 파노프스키가 도상해석학의 방법론을 위한 전형으로 삼을 만한 이유가 여기 있던 것이다.³²⁾ 이러한 의미층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기록적 의미로서 의미층의 구분단계를 넘어서 세계관에 대한 해석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궁극적으로 만하임에 의하면 세계관은 앞서 세 의미층들 가운데 대상들의 ‘객관적 의미’, ‘표현적 의미’와 구분되는 ‘기록적 의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즉 우리가 한 시대의 ‘사조’ 혹은 ‘정신’으로 부르는 총체는 우리에게 ‘이런 기록적 의미’의 양식으로 소여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우리가 한 창조적

31) IAU, pp. 46-48 참조

32) 파노프스키가 해석 구조에서 이해 행위를 세 단계로 구분한 것은 칼 만하임이 1923년 <세계관 해석론에 대한 연구>에서 다루었던 삼중적 이해와 일치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Karl Mannheim, "Beiträge zur Theorie der Weltanschauungsinterpretation", *Jahrbuch für Kunstgeschichte I* (150, 1921/22(d.1923), pp. 236-274 참조

개인, 또는 한 시대의 전체적 세계관을 구성하는 요소를 파악하는 관점임을 강조하였다.³³⁾ 말하자면 한 시대정신 혹은 세계관은 해석 주체가 자신의 역사적 실체(historic substance)에 의존하지 않고는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과거에 대한 기록적 해석의 역사가 동시에 해석주체 자신의 역사가 되는 진정한 까닭이 여기 있다는 것이다.³⁴⁾

이러한 만하임이 세계관의 해석에서 제시한 기록적 해석의 방법에서 그의 관심이 철학에서 지식사회학으로 이행하고 있는 단서를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기록적 해석에서 유인되는 이론들은 사유의 존재구속성에 대한 지식사회학적 통찰력을 견지하기 때문이다. 만하임에 의하면 기록적 해석은 해석자의 사회적 공간과 역사적 시간 속에서의 위치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³⁵⁾ 언제나 포괄적 의미를 재구성하려는 우리의 시도는 우리 자신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문화적 구조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한 시대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시대정신에 의존해야만 한다.³⁶⁾

2. 순환에 의한 이해와 귀속

지식사회학과 해석학에서 사회·역사적 해석의 방법을 모색하려는 가운데, 앞서 살펴본 지식사회학적 입장에서 만하임은 귀속이라는 의미있는 방법을 제공하였다면, 가다머는 해석학적 경험과 본질로부터 나오는 '순환'의 원리를 선입견, 영향사의식, 지평융합의 개념들에 의해 철학적 해석학의 입지를 구축한다. 물론 그러한 맥락에서 가다머가 사회·역사적 해석에 어떠한 제안을 줄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가다머를 자세히 보면 많은 이들이 텍스트의 사회·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그러한 이해에 의존하는데 실패한다고 얘기한 것을 넘어서 있는 입장을 파악할 수 있다. 오히려 그가 텍스트의 사회·역사적 맥락의 해석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예컨대 '선입견'과 같은 개념은 특정한 시대에 역사적인 근원을 둔 기본 가정들이 의미를 결정한다고 하는 가다머의 주장은 그의 접근이 바로 역사적 해석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뜻한다.³⁷⁾

33) ESK, p. 48 참조.

34) ESK, p. 63 참조.

35) ESK, p. 61 참조.

36) ESK, p. 61 참조.

더욱이 하이데거와 더불어 가다머의 해석학에서 지식사회학이 다루지 못하는 존재의 영역에 대한 지평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부여할 만하다. 인간 실존의 필수 불가결한 한 요소로서의 '배경' '기반' '암충'인 '선입견'에 대한 검토는 인간의 사고가 인간의 실존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점을 확실히 해준다. 비트겐슈타인이나 하이데거 그리고 가다머에 의해 명쾌하게 밝혀진 이 사실은 인간 사고의 특정한 국면이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서의 특정한 인간 집단과 어떻게 연결되는 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사회과학자들의 분석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즉 인간의 모든 사고가 실존적으로 형성된다면, 특정한 사고의 드러남은 특정한 상황에 의해 형성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드러남과 상황의 관계는 실증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과론적으로 결정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만하임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특정한 사고 체계와의 연계성은 해석학적 방식으로 분석되어야 할 해석의 문제인 것이다.

가다머는 해석학의 개념을 모든 이해의 특징과 근본적인 조건을 철학적으로 탐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해석학의 과제는 사회과학이나 다른 학문에 대한 방법론적 탐색이라는 주장을 거부하는데, 이것이 객관적 해석학이란 불리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그는 『진리와 방법』에서 인문과학에 대한 문제가 방법의 문제를 넘어서서 진리의 문제를 포괄하는 것이라면 진리 그 자체는 방법의 문제는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해석학의 두 방향에서 객관적 방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온 베티 등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고, 자신의 해석학을 '저기에 살아 존재하는 것의 유한성과 역사성을 형성하는 그래서 세계에 대한 그것은 경험의 총체성을 포함하는, 저기에 살아 존재하는 것의 움직임 속의 근본적 존재'라고 정의한다.³⁷⁾ 즉 자신의 해석학적 연구는 구체적인 살아 존재함에 대한 연구이고 궁극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존재함은 언어라는 이유에서 언어에 대한 연구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의 언어성이 가다머 접근에서 핵심적 사안이고 존재론이라는 입지를 밝혀주는 대목이다.

가다머의 존재론은 하이데거의 세가지 핵심적인 요소들로부터 자신의 존재론을 구체화시킨다. 그 하나가 존재의 지평은 곧 시간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해의 역사성 이론에 통합시키고 있는 이해의 전구조(*fore-structure*)로서 가다머의 독특한

37) Susan Hekman, 앞의 책, pp.83-8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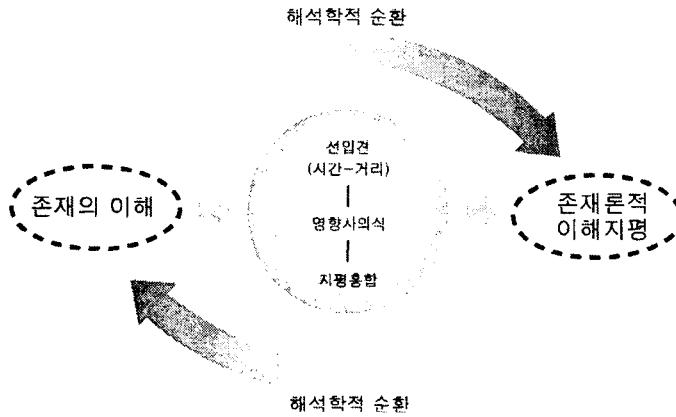
38) Hans-Georg Gadamer, *Truth and Method*, New York, Continuum, 1975, x x ii 참조.

해석학적 접근의 초석이 되고 있는 선입견이다. 마지막으로 하이데거의 접근에서 가다머가 주목한 것은 해석학적 순환의 개념이다. 하이데거는 해석학적 순환을 ‘이해에 있어서의 존재론적, 구조적 요소’라고 얘기하였다. 하이데거와 가다머에게 있어서 해석학적 순환은 형식적 순환이 아니라 전통의 움직임이 갖는 상호작용으로 이해를 보도록 해주는 것이다.³⁹⁾ 하이데거를 따라서 가다머는 해석학적 순환을 해결되어야만 하는 방법론적 문제가 아닌 이해의 존재론에 필요한 긍정적인 요소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의 움직임이 갖는 상호작용’과 그에 따른 결과를 기술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가다머는 선입견을 해석학적 문제에 참된 강조점을 두으로써 계몽주의와 결별을 고하고 노골적으로 ‘계몽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선입견은 전통의 힘을 앗아간, 선입견 자체에 대한 선입견이다’고 말한다. 즉 가다머는 새로운 해석학이 필요로 하는 것은 선입견이라는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복권이며 적법한 선입견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선입견과 진리의 연관성을 시간적 거리의 개념에 의해 정의하고, 해석학적 철학자들의 과제는 이해의 과정에서 선입견의 역할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비판적 이성의 명백한 과제’가 된다고 한다. 시간적 거리됨과 연결되어 있는 영향사의식(Wirkungsgeschichtliche Bewusstsein)을 도입하여 가다머는 어떻게 역사적 해석학의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지를 논의했다. 영향력있는 역사의식이란 역사적 사건의 영향력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우리의 연구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음을 일컫는다. 이것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것은 그것이 경험의 구조를 갖는다는 사실이다. 가다머는 이것이 지평 융합으로 작용할 때의 현상을 식별하고, 지평의 개념을 ‘특정한 유리한 견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시계(range of vision)라고 정의한다.⁴⁰⁾ 지평의 융합이라는 가다머의 개념은 그의 해석학적 이해에 또다른 중심적 요체이다. 이러한 가다머의 존재론적 지평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들이 순환의 원리 속에서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해석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림 2> 과 같이 해석의 실재를 전제한 존재론적 절차는 이러한 중심축을 근거로 하여 해석 대상보다도 해석자의 지평이 보다 면밀하게 고찰됨으로서 존재론적 구조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9) 같은 책, p.261 참조.

40) 같은 책, p.271 참조.



<그림 2> 가다머의 해석학에 기초한 존재론적 관점의 순환 구조

V. 결론: ‘귀속’과 ‘순환’의 사회·역사적 해석의 의의

예술은 사회와 역사로부터 독립된 천재의 산물이 아니라⁴¹⁾ 역사적 전승과 사회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구조화된 실체인 까닭에, 이러한 사회·역사적 실체로서의 텍스트를 드러낼 수 있는 해석의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해석 대상으로서의 예술을 그 본래의 사회·역사적 발생점으로 되돌려서 사실을 파악하게 하고, 해석 주체의 역사의식과 해석 상황에 따라 의미가 발생된다는 맥락에서 볼 때, 해석에서 인식론과 존재론의 두 관점은 예술의 사회·역사적 지평을 드러내는 필연적인 토대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인식론적 관점에서는 ‘귀속’이 그리고 존재론적 관점에서는 ‘순환’이 그러한 해석의 지평을 드러내는 데 주요한 해석의 절차로서 자리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따라서 예술의 사회·역사적 해석에 있어서 귀속과 순환이라는 이 두 논점은 해석을 보다 충실하게 이끄는 주요한 절차들로서 상호 의존적인 양태로 해석에 참여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예술의 사회·역사적 해석에 있어서 기존의 직관적이고 환원적인 태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의미를 획득할 것이다. 특히 이 글은 예술이

41) 이러한 연구자의 입장은 예술에 대한 탈신비화를 주창했던 자넷 윌프, 베라 졸버그와 같은 예술 사회학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한 입장은 Janet Wolff, *Hermeneutic Philosophy and the Social of Art*, London and Boston: R.K.P., 1975. ; *The Social Production of Art*, London: Macmillan, 1981. ; *Aesthetics and the Sociology of Art*, George Allen & Unwin, 1983와 Vera L. Zolberg, *Constructing a Sociology of the Ar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이 있다.

지난 사회적 조건과 환경의 영향관계를 보다 잘 드러낼 수 있는 해석의 방법으로서 귀속과 순환의 두 개념들이 상호의존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예술에 대한 이해가 인식론적으로나 존재론적으로 치우침 없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었다. 예컨대 양자의 특수한 성격에 의해 보다 더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충족과 결여의 부분을 양자가 적절히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의 귀속과 순환의 절차에서 정리된 바에 의하면 각각은 충족과 결여가 있고 이는 상호의존적인 입장에서 종합됨으로써 보다 충실한 해석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Dessoir, Max. *Ästhetik und Allgemeine Kunstwissenschaft*. (trans.) Stephen A. Emery, *Aesthetics and Theory of Art*. Detroit: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1970.
- Gadamer, Hans-Georg. *Hermeneutik I: Wahrheit und Methode · Grundzüge einer philosophischen Hermeneutik*. Tübingen: J. C. B. Mohr, 1960/1990.
- _____. *Das Problem der Sprache*. München: W. Fink, 1967.
- _____. *Philosophical Hermeneutics*.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6.
- _____. *Heideggers Wege: Studien Zum Spätwerk*. Tübingen: Mohr, 1983.
- Heidegger, Martin. *Der Ursprung des Kunstwerkes*. Stuttgart: Reclam, 1965.
- _____. *Sein und Zeit*. Tübingen: Max Niemeyer, 1976.
- _____. *Gesamtausgabe Band 63 Ontologie. Hermeneutik der Faktizität*. Frankfurt am Main: Vittorio Klostermann GmbH, 1988.
- Mannheim, Karl. *Ideology and Utopia*. (trans.) Louis Wirth and Edward Shils, London: R. K. P., 1936.
- _____. *Essay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ed.) Paul Kecskemeti, London: R. K. P., 1952.
- _____. *Essay on the Sociology of Social Psychology*. (ed.) Paul Kecskemeti,

London: R. K. P., 1953.

_____. *Essay on the Sociology of Culture*. (ed. & trans.) Ernest Mannheim and Paul Kecskemeti, London: R. K. P., 1956.

_____. *From Karl Mannheim*. (ed.) Kurt H. Wolff,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1.

_____. *Structures of Thinking*. (ed. & intro) David Kettler, Volker Meja and Nico Stehr, London: R. K. P., 1982.

Palmer, R. E. *Hermeneutics: Interpretation Theory in Schleiermacher, Dilthey, Heidegger, Gadamer*.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9.

Wolff, Janet. *Hermeneutic Philosophy and the Sociology of Art*. London: R. K. P., 1975.

_____. *The Social Production of Art*. London: Macmillan, 1981.

_____. *Aesthetics and the Sociology of Art*. George Allen & Unwin, 1983.

■ Abstract

Issues of the Socio-historical Interpretation in Art

- Interpretation of inter-dependency as Imputation and Circle -

Park, Nam-Hee

Amongst various methods of interpreting art, a understanding of the intention of artistic creation has been traditionally considered the most essential. Hermeneutics is the typical way of approaching it. With a focus on interpret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object, Hermeneutics delves into methodological techniques of interpret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existence of art from ancient Greece to the present. Nevertheless, from the Hermeneutic viewpoint, art as the object of interpretation is not free from social conditions and tradition; for this reason, interpretation of art basically has a socio-historical aspect. The starting point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methods of

understanding art from the socio-historical viewpoint.

For this purpose, I study the theory of Hermeneutics as a basic of socio-historical interpretation of art, calling for methodology I need to justify inter-dependency of the epistemological viewpoint and the ontological viewpoint in interpretation of art. Here, I suggest 'imputation(Zurechung)' and 'cycle(Zirkel)' as methodological concepts to support interdependency of these two viewpoints in Hermeneutics. Zurechung means explanation of meaning based upon the higher standard that includes the object of interpretation, while Zirkel means perception of part in order to understand the whole and, in turn, recognition of the whole in order to understand the part. These two concepts function inter-dependently in clarifying the object of interpretation and various problems of understanding human beings derived from it in the process of interpretation. This is also a key to the explanation that the object in social condition is closely related to historical perspective.

Key Words : art, socio-historical interpretation, imputation(Zurechung), circle(Zirkel), inter-dependency